

노화방지 No.7 P&P크림 구매 광란

영국 TV 소개되며 매출 2000매 경총 ... 프로레티놀 성분 함유 효과적

영국에서 하룻밤 사이 매출이 무려 2000배나 치솟는 화장품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주름살 방지 화장품으로 <No.7 Protect & Perfect Beauty Serum>이 약, 건강용품,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중저가 소매기업인 부츠(Boots)에서 16.75파운드(30ml 용량에 약 3만원)에 팔리고 있다.

부츠 점원들은 진열대 아래 화장품을 숨겨둔 채 점원에게 직접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 1명당 1개밖에 팔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팅엄 공장은 하루 2만4000개를 생산하기 위해 24시간 조업하고 있다.

해당 주름살 방지 화장품은 얼마 전까지만도 여성 소비자들의 눈을 끌지 못했으나 3월27일 BBC2 TV의 과학 프로그램 <호라이즌>에서 맨체스터 대학 과학자들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노화방지 화장품들을 대상으로 효능을 시험한 결과 <Protect & Perfect>가 수백 파운드짜리 고가 유명 브랜드 화장품들을 제치고 피부 손상과 주름을 없애주는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저명한 피부과 전문의 크리스 그리피스 교수는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에 해당되는 피부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형성과 관련 있는 단백질 피브릴린의 생성을 부츠 크림이 촉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리피스 교수는 시중에서 파는 화장품이 햇빛으로 인한 피부손상을 치료하는 처방약인 레티노산(Retinoic Acid)이나 트레티노인(Tretinoin)에 버금가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으나 P&P 화장품은 주름살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프로레티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영국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유명 TV 프로그램 <호라이즌>의 위력은 폭발적이어서 방송 이후 영국 여성들이 전국 수백개 부츠 매장으로 달려가면서 구매 열기가 이어져 방송이 나간 주일에 분당 13개의 속도로 팔리며 매출이 무려 2000배나 수직 상승했다.

부츠 웹사이트에서는 모두 매진됐고, eBay 사이트에서는 가격이 100파운드까지 치솟았다.

2005년 초 출시된 이래 월평균 1만개 밖에 팔리지 않던 P&P 화장품은 3일만에 재고까지 다 팔렸고, 5만명이 화장품 구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부츠는 일시 화장품 공급을 중단하고, 서둘러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갔다. 부츠는 5월4일 화장품 시판을 재개한다는 광고를 냈고, 영국 부츠 매장에서는 5월4일 아침 일찍부터 고객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섰다.

P&P 화장품은 미국 TV 프로그램 <투데이>에도 소개됐는데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9>